

# “땀·기름 땀 작업복, 세탁 고민 사라졌네요”

광주 하남산단 작업복 전문 세탁소 '광클리닝' 가보니

### 일반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따로 손빨래 등 고충 공업용 세탁기 3대·건조기 3대 갖춰...산단업체들도 만족 노동자근심·오염 불안 덜어 '일석이조'...세탁비 문제 풀어야

소매에서 어깨까지 물은 시꺼먼 기름때, 불똥이 튀어 구멍 뚫린 상의, 낡고 헤진 바지단, 곳곳에 물은 얼룩들.

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단지 내 세워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광클리닝'에 맡겨진 산단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성한 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날 작업복 세탁소에 들어온 분량은 2개의 노란색 상의 2개를 가득 담았다. 작업복은 시꺼먼 기름때가 많이 묻은 옷부터 분류된 뒤 3대의 세탁기에 나누어 세탁된다.

기름이 줄줄 흐르고 사방에서 불똥이 튀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노동자들의 '장비'인 작업복 세탁은 노동자들의 고민이었다.

기름때, 유해물질 등이 묻어있는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전문세탁소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고 가정용 세탁기로 돌리기도 걱정된다는 게 노동자들 설명이다. 작업복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이 식구들 옷을 오염시킬까 봐서다.

이런 걱정을 덜어준 게 지난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중인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다. 오는 22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뒤 3년 만으로, 김해·창원·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

세탁소는 225㎡ 규모 공간으로, 공업용 세탁기 3대(35·50·100kg), 건조기 3대(각 100kg 용량) 등을 갖췄다.

가스스티모일러와 대형 프레스형 다리미, 간단한 수선실도 마련됐다.

1일 실제 세탁을 시작한 이후 7일까지 세탁된 노동자 작업복은 249벌. 하루 평균 35벌 꼴로 매일 세탁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름때와 유

해물질이 섞여 있어 일반 세탁소에선 받아주질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함께 쓰는 가정용 세탁기에 작업복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작업복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이 식구들 옷을 오염시킬까 봐 항상 걱정이 앞섰다는 게 노동자들 얘기다.

세탁소를 이용하게 된 노동자는 “그동안 일반 세탁소에서는 페인트가 묻어있는 작업복을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쓰는 집 세탁기에서 페인트와 시너가 묻은 작업복을 돌렸다”면서 “작업복에서 나온 물질이 식구들 옷을 오염시

킬까 봐 따로 세탁하긴 했지만 항상 걱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작업복에는 가루나 먼지가 워낙 많이 나와 집 세탁기가 자주 고장나는 것 같아 손빨래를 했는데, 그런 걱정은 덜게 됐다”고 했다.

업체들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일주일에 3차례, 60벌씩 회사 비용으로 세탁을 맡기는 하남산단 내 현대하이텍 관계자는 “예전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세탁을 했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 복지 차원에서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지역민과 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벌당 500~1000원의 세탁비용 문제는 사용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노동계에서는 깨끗하고 튼튼한 작업복을 입을 권리는 곧 건강·안전·환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작업복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세탁소에 작업복을 맡기고 있는 10여 곳의 사업체들 대부분은 회사 노동자들의 세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탁비가 아무리 저렴해도 매일 수십벌의 세탁비용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처음으로 제안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아직도 여수산단, 대불산단, 광양제철소 등지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복 세탁을 가정에서 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모든 산단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산단지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실시단’은 이날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해 세탁시설 가동 등 운영 실태를 둘러보고 전국 확대를 위해 개선·보완할 점 등을 살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일 오후 시범운영중인 광주시 광산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클리닝'에서 광산지역지활센터 소속 자활 근로자들이 이날 수거된 노동자 작업복을 오염도에 따른 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만원 송금하고 수고비 55만원 받은 20대 피해금 3000만원 돌려주고야 집유로 풀려나

을 발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1심에서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소심인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

도 1심대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분명을 쓰지 말 것을 지시받았고 추심 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송금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한

점 등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 재판부가 자신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형으로 선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빛원전 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중 고온관 균열 의혹 제기

계획예방정비중인 한빛원전 6호기(7압경수로형·100만kW급)에서도 증기발생기(RSG) 교체 작업중 고온관의 '균열'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호기 증기발생기의 고온관 균열이 확인 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위원회 민원제보란을 통해 접수받았다.

제보는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배관 용접 시 배관에 균열이 확인됐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용접이 이뤄진 사실 ▲증기발생기 사공시 용접절차 시방서(WPS) 미준수 ▲증기발생기 하부구조물 공사비 과다 산정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측은 제보 내용과 관련, 정상적으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감이 높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한빛원전의 경우 한빛 5호기 관통용 용접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가 부실 정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허위 발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빛원전측은 6호기 균열 의혹과 관련,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확인중”이라며 한수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뇌물수수 혐의 백순선 복구의원 검찰,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경찰의 백순선 복구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백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의 대가성 입증에 위한 수사를 보완하라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백 의원은 경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700만원 상당의 복구청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복구청 집행부 공직자들은 백 의원에게 의뢰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성으로 수의계약을 제공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한편, 경찰은 백 의원 외 다른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복구 의원과 관련, 구의원과 공무원의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망막이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